

#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향후 운용방향

---

2021. 7.

금융위원회



# Table of Contents

- I 위기의 전개
- II 정책대응기조
- III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
- IV 위기대응 성과
- V 앞으로의 과제
- VI 향후 정책 운용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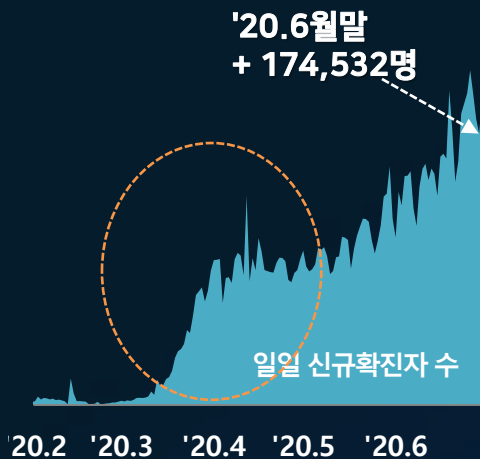


# I. 위기의 전개 (1) 글로벌 동향



**2020년초 팬데믹 상황 전개 및 각국의 봉쇄조치**  
→ **글로벌 경기위축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**

전세계 일일 확진자수



\* Johns Hopkins Univ.

글로벌 이동제한강도



\* Goldman Sachs

VIX / 다우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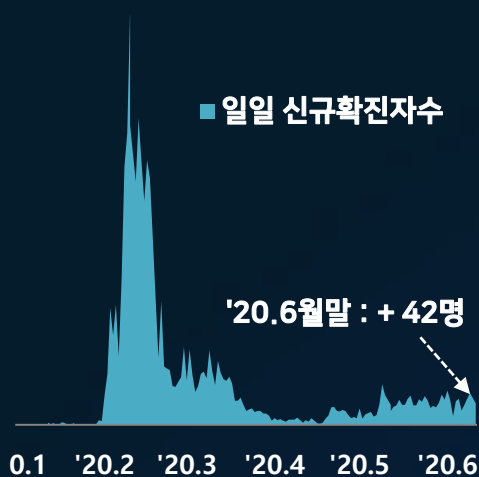


# I. 위기의 전개 (2) 우리나라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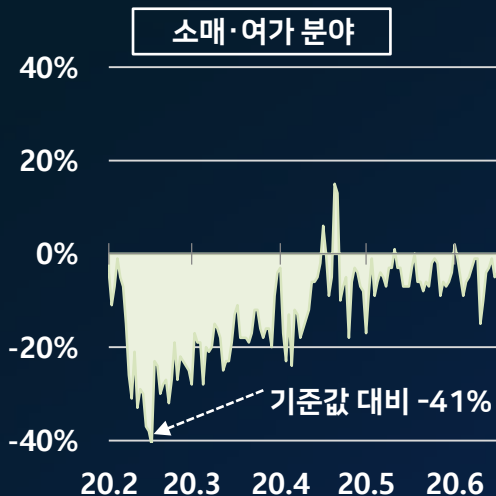
효과적인 방역대응에도 불구하고, 경제활동 위축·불안심리 확산  
→ 경제·금융시스템 안정 저하

한국 일일 확진자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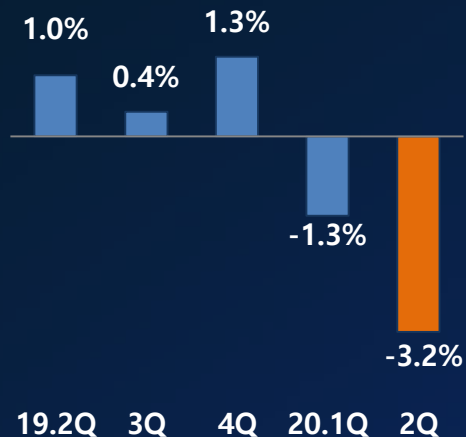
\* Johns Hopkins Univ.

Google 이동성 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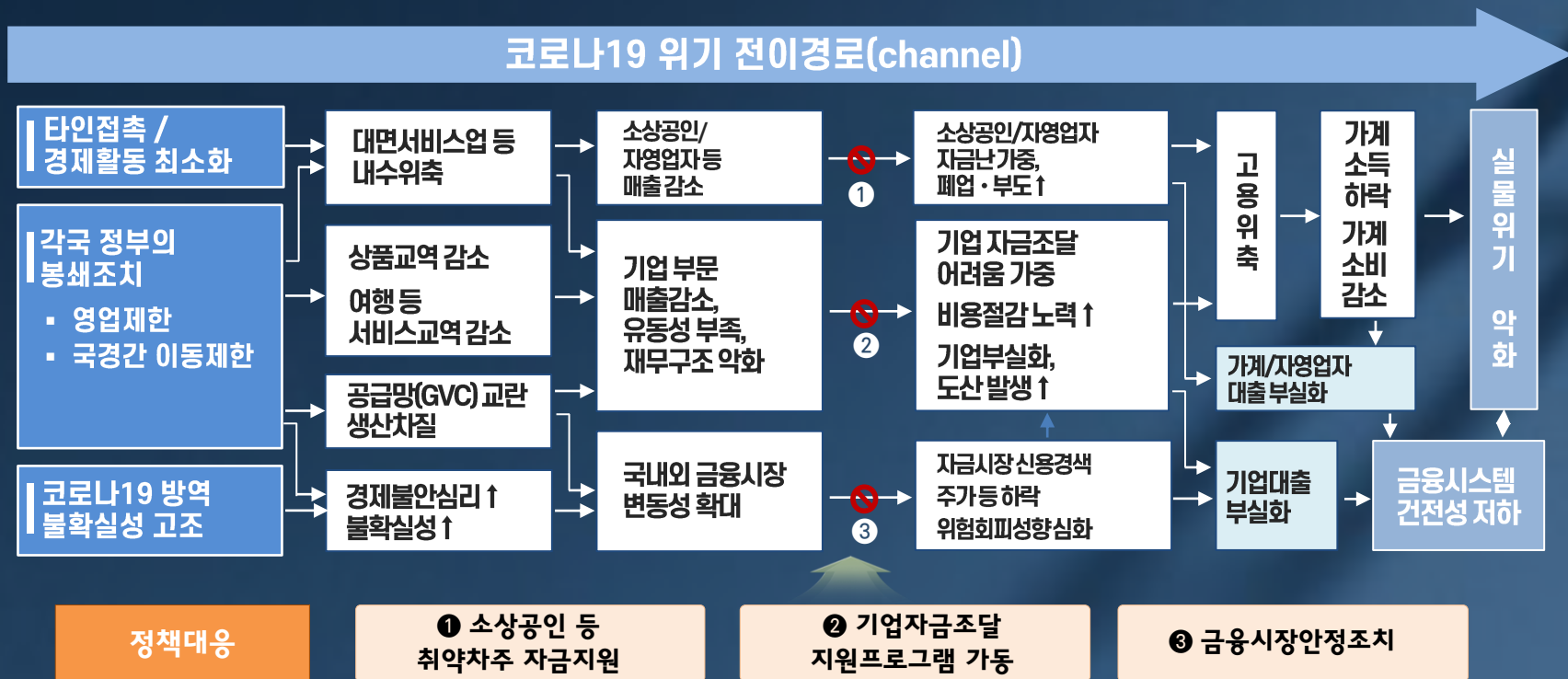
\* 기준값 : 코로나前 5주간 중앙값

경제성장률 추이



## II. 정책대응 기초 (1/3)

### ◆ 감염병발 위기의 전파경로(channel) 및 악순환(vicious cycle) 차단



## II. 정책대응 기초 (2/3)

### ◆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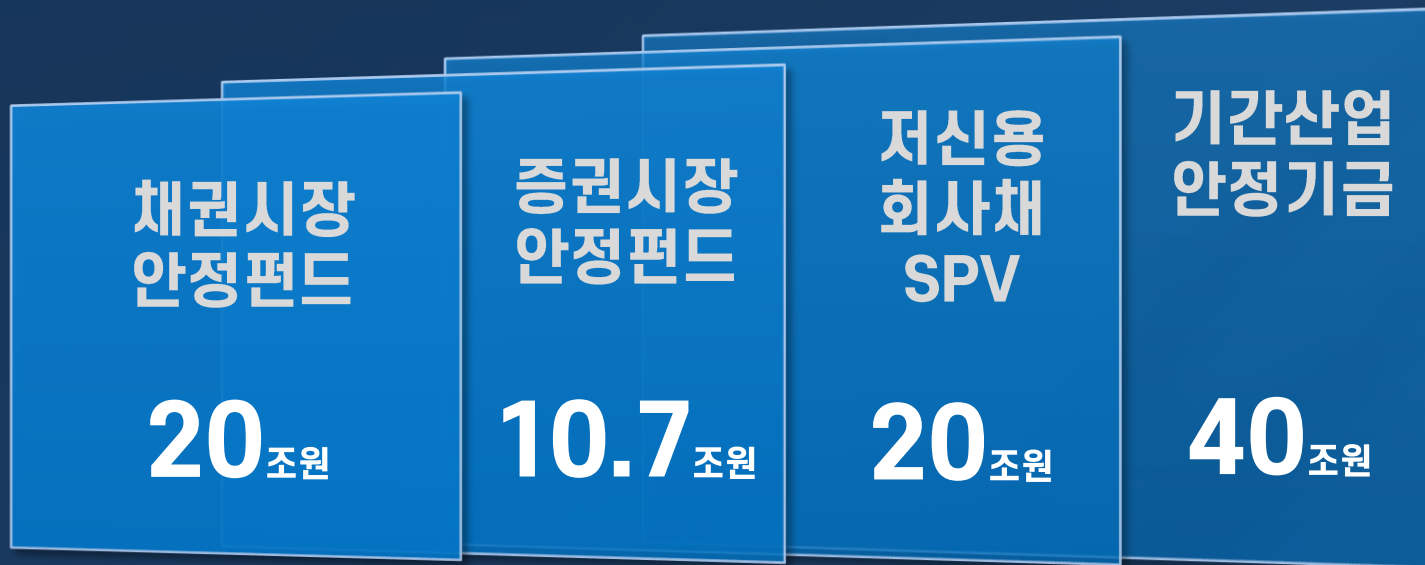
- 실물전반을 포괄하는 금융지원 + 금융시스템 자금중개기능·건전성 유지

	대출·보증		증장기채		단기채	주식
	만기연장	신규공급	저신용 SPV P-CBO 등	채안펀드	유동성 공급	증안펀드
소상공인·자영업자	○	○				
중소기업	○	○	○			
중견기업		○	○	○	○	
대기업		○	○	○	○	
(구조조정 대기업)			○ (구조조정 프로그램, 산은·수은 등 포함)			
증권사·여전사				○	○	
주식시장						○
채권시장				○		

## II. 정책대응 기초 (3/3)

### ◇ 불안심리를 압도하는 두터운 방화벽(firewall) 구축

- 가용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규모 안전장치 구축
- 불안심리 전염,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 거둠





### Ⅲ.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(1/4)

#### ◇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체계 : 175조원+@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

구 분	주요 지원 프로그램	정책 목표
01 소상공인/中企 등 취약부문 자금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</li><li>▶ 정책금융기관 대출·보증 확대</li><li>▶ 금융권 대출·보증 만기연장·이자유예</li></ul>	⇒ 취약계층 자금애로 경감
02 기업자금조달 애로 경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저신용 SPV, 코로나피해 P-CBO, 회사채·CP 차환프로그램 등</li><li>▶ 기간산업안정기금, 자산매입지원,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</li></ul>	⇒ 재무여건 개선, 자금조달 안정
03 금융시장 안정 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채권시장안정펀드(20조원) 및 주식시장안정펀드(10.7조원) 마련</li><li>▶ 증권사 유동성 지원</li></ul>	⇒ 금융경색 방지 및 불안심리 차단
04 금융권 실물지원 여력 극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</li><li>▶ 금융회사 면책제도 시행</li></ul>	⇒ 실물부문 자금공급 확대



### Ⅲ.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(2/4)

#### 01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부문 자금지원 강화 (2021.6월말 기준)

소상공인 1차, 2차  
금융지원프로그램

- ✓ 한도증액
- ✓ 보증료율 등 인하
- ✓ 집합금지업종 등  
특별대출 신설

21.5조원

목표(26.4조원)  
대비 81%지원

소상공인/중소기업  
특례보증

- ✓ 보증한도 확대
- ✓ 보증비율 상향
- ✓ 보증료율 차감

17.9조원

목표(15.3조원)  
대비 117%지원

중소중견기업  
자금지원 확대

- ✓ 특별대출상품 출시  
- 심사간소화  
- 대출한도배제

45.3조원

목표(37.8조원)  
대비 120%지원

만기연장 및  
이자상환유예 지원

- ✓ 쏠금융권 시행
- ✓ 코로나 피해  
소상공인·중소 대상

204.2조원

(21.6.25. 기준)

취약 개인채무자  
재기지원

- ✓ 코로나 피해로  
대출 정상상환  
곤란 차주
- ✓ 원금상환유예 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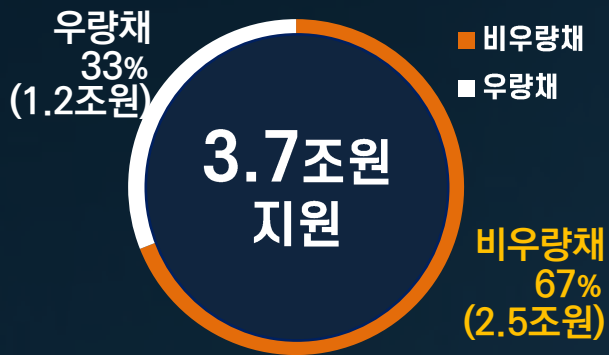
프리워크아웃 1,107억원  
신복위 채무조정 5,090억원  
연체채권 매입 594억원

(21.5월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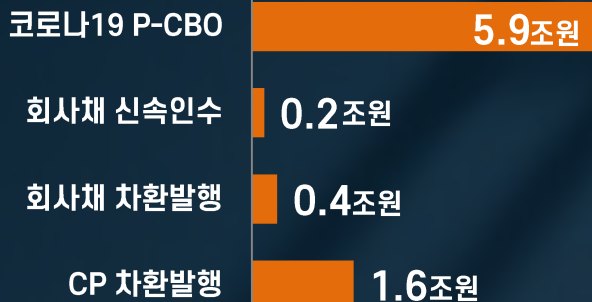
### Ⅲ.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(3/4)

#### 02 기업자금조달 애로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시행

#####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(SPV)



##### 코로나피해 P-CBO/회사채 차환지원



##### 기간산업안정기금

6,457억원

##### 기업자산 매각지원

1.2조원

#####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

2.5조원

### Ⅲ.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(4/4)

#### 03 금융경색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 시행

##### 증권시장안정펀드

10.7조원 규모

- ✓ '20.3.19./3.24. 조성방안 발표
- ✓ '20.3.26. 유관기관 0.7조원 조성
- ✓ '20.4.9. 금융권 10조원 조성

##### 채권시장안정펀드

20조원 규모  
→ 2.4조원 지원

- ✓ '20.3.19./3.24. 재가동방안 발표
- ✓ '20.4.1. 재가동 개시

##### 증권사 유동성 지원

5조원 규모  
→ 10.5조원 지원

- ✓ '20.3월, 증권금융 유동성 공급, 한은의 RP참가대상/매수 확대 등 시행

#### 04 금융권의 원활한 실물지원을 위한 제도개편

#####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

- ✓ 자본규제 : 증권사 NCR 한시적 완화, 바젤3 최종안 조기시행 등
- ✓ 유동성규제 : 예대율규제 한시적 유예, LCR규제 한시적 완화 등
- ✓ 영업규제 : 만기연장대출/폐업사업자대출 건전성 분류 조정

##### 면책제도 개편

- ✓ 금융회사 임직원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적극적 역할 수행시 제재우려 ↓

# IV. 위기대응 성과 (1) 실물부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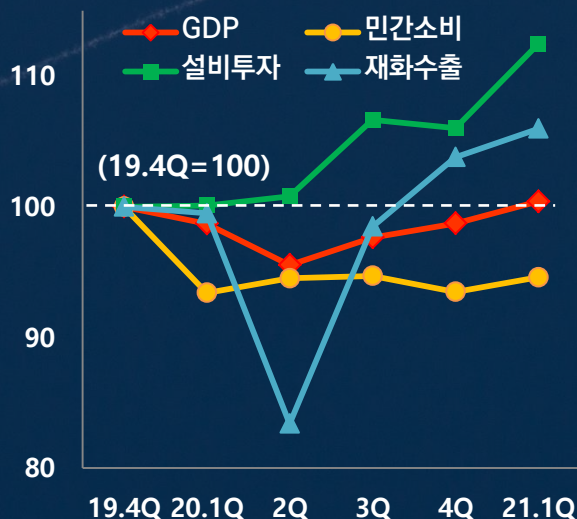
◆ 실물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실물부문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  
→ 역성장폭 최소화, 회복 반등의 발판 마련

- '21년 들어 거시지표 흐름 양호, 한국 경제성장 전망도 상향조정중

## 경제규모 순위

2019년		2020년	
1위	미국	1위	미국
:	:	:	:
8위	이태리	8위	이태리
9위	브라질	9위	캐나다
10위	캐나다	10위	한국
11위	러시아	11위	러시아
12위	한국	12위	브라질

## GDP·민간소비 등 수준



##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

기관	'21년 경제성장률 〈전망시기〉
IMF	3.6% 〈4월〉
OECD	3.8% 〈5월〉
한은	4.0% 〈5월〉
무디스	3.5% 〈5월〉
골드만삭스	4.5% 〈6월〉

## IV. 위기대응 성과 (2) 금융부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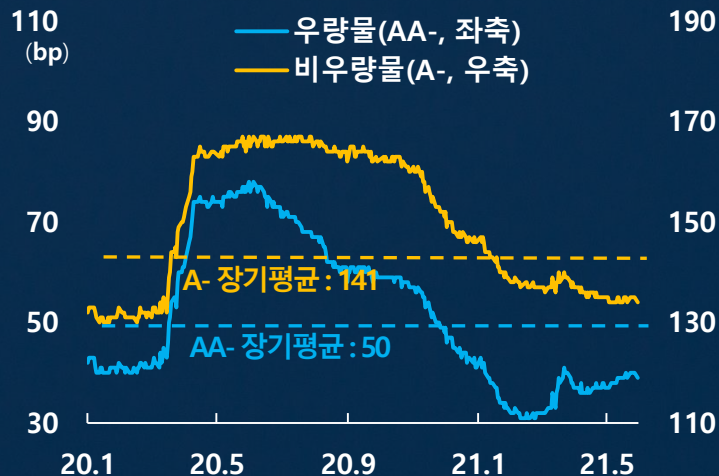
### ◇ 금융부문 위기의 전염·확산을 차단, '20년 하반기부터 시장안정화

- 금융회사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 → 실물부문 자금공급 여력 유지

주가지수 및 주가변동성 지수



회사채 금리스프레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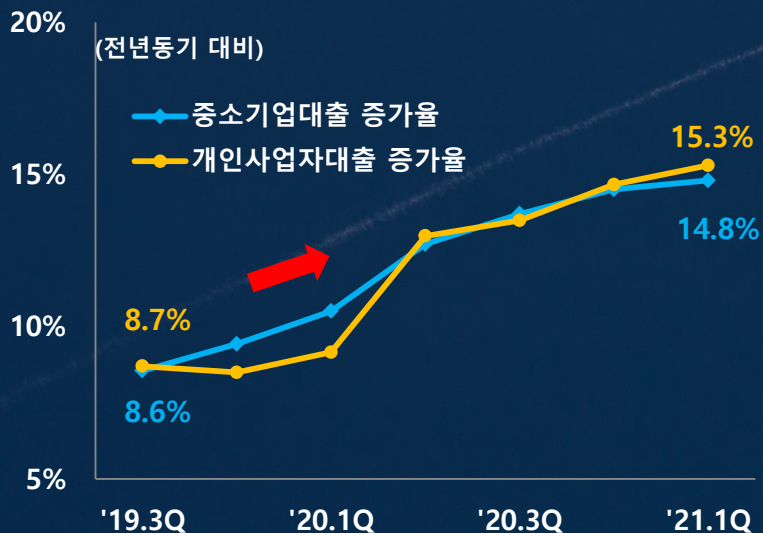




## IV. 위기대응 성과 (3) 자영업자·중소기업

◇ 자영업자·중소기업 자금지원 적극 확대, 만기연장·이자상환유예 등 지원  
→ 연체없이 유동성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토대 제공

중소기업 대출 증가율



중소기업 업황 SBH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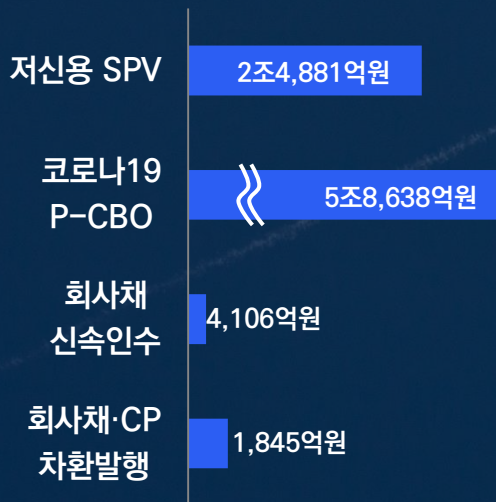


## IV. 위기대응 성과 (4) 중견기업·기간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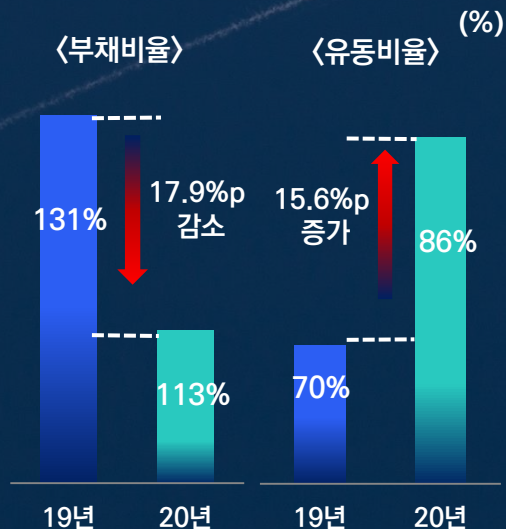
### ◆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시행 → 자금조달여건 안정화

- 기업의 연쇄도산, 대규모 실직 등에 따른 고용불안 없이 위기상황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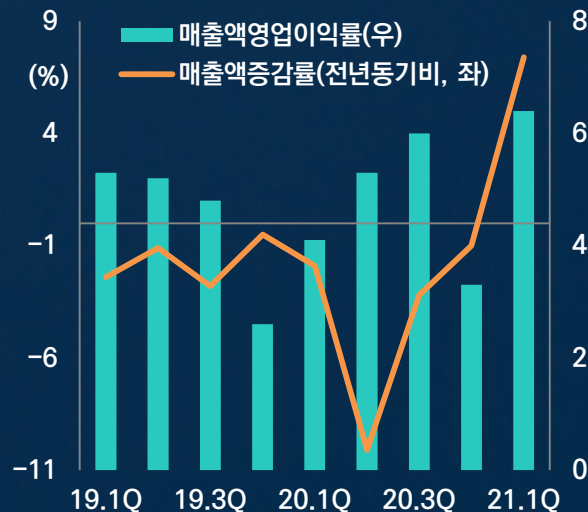
비우량채 매입규모



기업자산매각지원 성과



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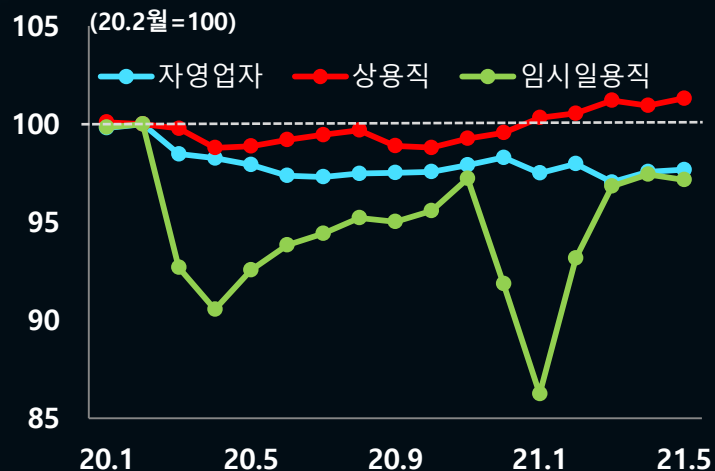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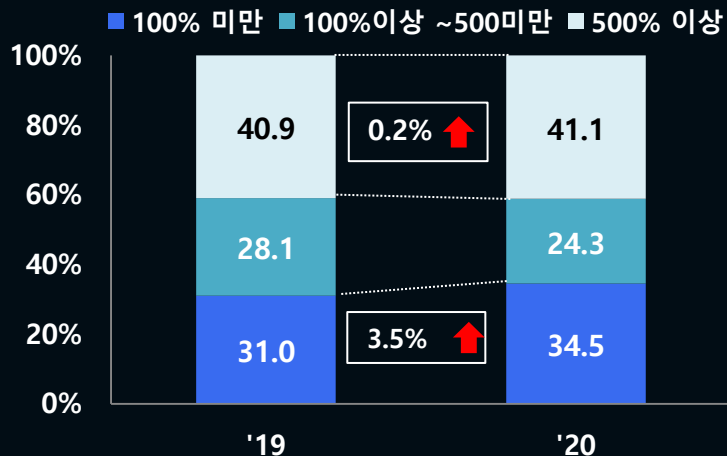
## V. 앞으로의 과제 (1/2)

- ◆ 방역 : 백신접종을 상승,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성은 여전
- ◆ 취약부문 지원 : 전반적 여건 개선에도, 부문간 회복속도의 격차 존재
  - 차별화된 고용충격으로 취약가구 어려움 가중, 기업간에도 양극화 심화

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



이자보상비율 구간별 기업수 비중



## V. 앞으로의 과제 (2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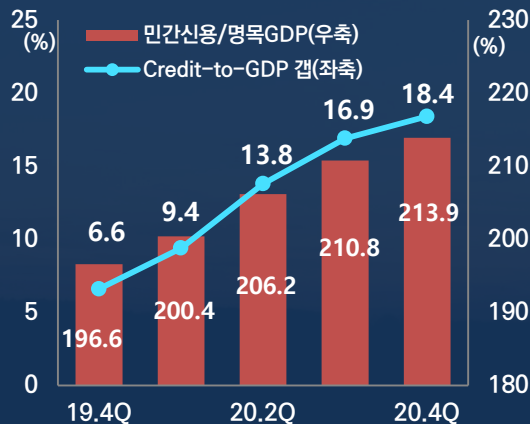
### ◆ 금융시스템 잠재위험 관리 및 거시건전성 유지

유동성/민간부채의 가파른 증가  
→ 잠재리스크 누적 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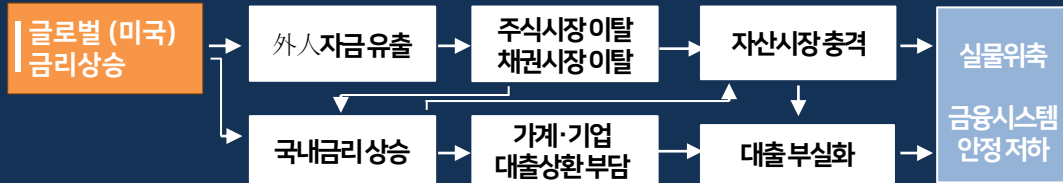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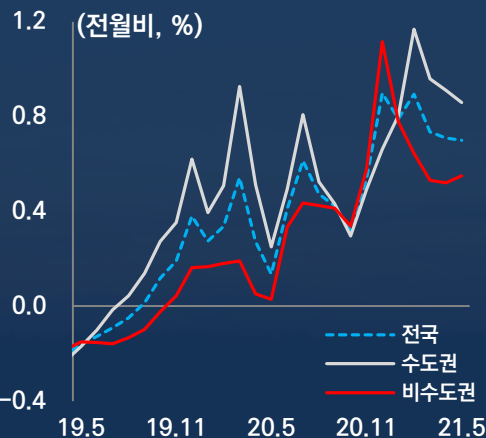
차입비용 감소, 위험 선호 증대  
→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

글로벌 정책 정상화  
→ 금리 상승,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

#### 민간부채 증가세 / GDP갭



#### 주택매매가격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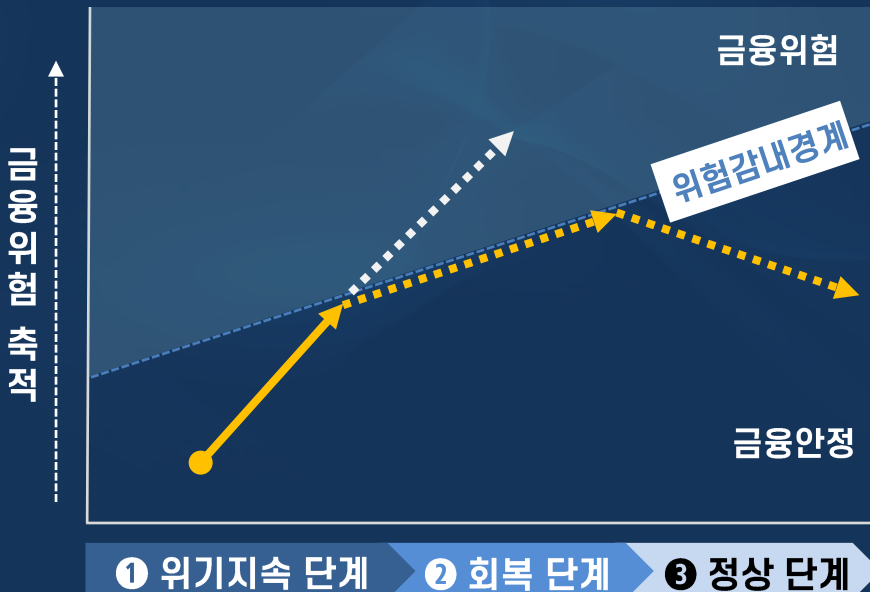
## VI. 향후 정책 운용방향 (1/4)

### ◆ 위기극복이 가시화되는 적정시점부터 금융정책 정상화 개시

#### 정상화 추진 원칙

- ① 과잉부채 등 잠재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 → 금융안정 도모
- ②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을 더욱 두텁게 지원
- ③ 금융정책 정상화는 점진적·단계적으로, 질서있게 추진

#### 정상화 추진 경로



# VI. 향후 정책 운용방향 (2/4)

## ◆ 방역-실물-금융상황 다층적 점검 → 진단-대응체계(framework) 운용

- 코로나19 상황점검 워킹그룹 운영중('21.3월~) → 분기별로 상황진단



# VI. 향후 정책 운용방향 (3/4)

## ◆ 정상화 계획(plan) 및 경로(path) 설정 →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

### 시장안정 프로그램

→ 자산규모 축소하되  
시장불안시 즉각 가동

- ✓ 채안펀드/증안펀드  
: 추가 캐피탈콜/자산매입 중단  
(다만, 제도적 틀 유지)

### 취약차주 지원 → 위기극복시까지 지원

- ✓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속
- ✓ 만기연장·이자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 
연착륙 지원, 컨설팅 제공
- ✓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지속

### 대내외 잠재위험 → 관리강도 강화

- ✓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및  
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유도
- ✓ 관계부처와 함께  
부동산 등 투기수요 차단 주력
- ✓ 대외리스크 파급경로 모니터링
- ✓ 금리상승충격 취약요인 분석 및  
완충 유도

###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→ 연착륙 유도

- ✓ 각 조치별로 연장·보완여부  
판단하고 점진적으로 정상화

### 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 → 비우량기업 유동성 지원에 주력

- ✓ 저신용 SPV : 매입기한을 연장하되,  
추가 캐피탈콜 없이 現 지원여력 활용
- ✓ P-CBO / 차환지원프로그램 :  
회복속도가 더딘 기업에 보완지원

## VI. 향후 정책 운용방향 (4/4)

◆ 정상화는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님  
→ Next Finance으로의 정상화 추진 → 경제역동성 제고



증가한 유동성  
→ 성장잠재력  
제고에 활용

✓ 디지털·그린뉴딜 등  
신산업/고생산성 분야  
자금공급 강화

✓ 한계기업  
구조조정 추진

✓ 부동산 분야  
자금유입 차단



취약계층 충격  
최소화  
→ 금융포용성 강화

✓ 취약계층에 대한  
상흔효과(scarring effect) 방지

✓ 새로운 일자리 창출,  
고용안정 등을  
금융권이 적극 뒷받침



핀테크·빅테크 등  
금융역동성 제고  
→ 위기극복 활력 건인

✓ 빅테크 등 진출 확대, 규제개선  
및 공정경쟁 확립  
→ 혁신흐름 확산

✓ 금융역동성 제고  
→ 경제활력 건인

# 감 사 합 니 다

---

“큰 곳보다 급한 곳이 우선이다”